

【현대 미술의 전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올가을 오카야마는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오카야마 성을 비롯한 중심 시가지 곳곳에서 (주) 크로스 컴퍼니의 이시카와 사장이 대표를 맡고있는 「이시카와 문화진흥 재단」 소장의 세계적인 현대 미술품이 많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현대 미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현대 미술에 접한 것은 수십 년 전 나오시마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먼저 깜깜한 방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뒤 점차 눈이 익숙해지면, 희미 영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안 보이는 걸까? 아직도??) 이유를 몰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나오시마에서 돌아와서도 또한 지금까지도 강하게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 미술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현대 미술은 무리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이번 기획의 하나인 오카야마성 혼마루 본 단에 경면가공의 탁구대 같은 것을 14대의 두는 것. 해설로는 감상자는 실제로 탁구대를 사용하여 탁구를 할 수 있어 탁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작품 일부가 된다.

『보는 것』 과 『볼 수 있는 것』 경계선을 모호하게 해서 아트 본연의 자세를 묻게 된다.」 고 쓰여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가운데, 반드시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카야마의 역사·문화 영역에는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존의 문화재 가치를 밝혀내고 역사를 재인식해서 현대 예술과의 대비를 밝히면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가을에는 “ESD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 회의 ‘개최와’ 이온 물 오카야마」의 개업에 따라 지역 국외에서도 많은 분이 오카야마를 방문합니다.

시민 여러분을 시작해 내방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이 현대 미술을 즐기고 싶다고 생각합니다.